

제424회 국회 (임시회)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7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가. 외교부(APEC 준비기획단)  
나.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 1  
가. 외교부(APEC 준비기획단)  
나.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직 두 분 다 안 오셨구나.

이연희 위원님하고 그리고 홍기원 위원님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오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잠시 질의 마치고 다음 순서 이전에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관련 기관들의 첫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로 먼저 외교부 및 APEC준비기획단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APEC준비지원단으로부터 건의사항 등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외교부(APEC 준비기획단)  
나.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14시03분)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 정일영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위 위원님 여러분!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오늘 제2차 전체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APEC정상회의는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외교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범국가적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작년 초에 출범한 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핵심 성과 거양,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문화 및 경제 행사 기획, 행사 의전 등 각 분야에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개최지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APEC준비지원단을 출범시켜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2일에는 중앙의 준비기획단과 경상북도 및 경주시 간의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하여 2025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팀이 되어 일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으로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초당적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2025APEC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자 하며, 특위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부득이 인사말씀만 드리고 먼저 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참석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외교부2차관이 계속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외교부장관 이석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 교섭단체 간사실과 위원장 사 이에 양해가 되었다는 사안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가시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김기현** 아, 그러시겠어요?

정일영 간사님.

○**정일영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이석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APE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첫 회의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 요구하고 서면질의가 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잘 챙기셔서 자료와 서면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인선 차관께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 정일영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외교부2차관입니다.

먼저 참석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의전장.

윤성미 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김지준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기획실장.

김지희 국제경제국장.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2025년 APEC정상회의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배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APEC 개요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1989년 호주에서 각료회의로 출범해 1993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1개 회원이 참여하며 세계 GDP의 60% 이상, 총 교역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습니다.

APEC은 지역경제 통합 및 역내 번영 증진을 목표로 하며 균형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APEC의 회원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등 21개이며 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가 옵서버 기구로 참여 중입니다.

아울러 APEC은 국가 단위가 아닌 경제 단위로 참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대통령 훈령 제정에 따라 2025년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이 출범하여 정상회의 준비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한편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총 네 차례 열려 경상북도 경주시를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 및 건의하였고 2024년 6월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준비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9월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준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

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에서 3차 고위관리회의, 12개 부처가 주관하는 14개 분야별 장관급 회의 등 200여 개 회의가 경주, 제주, 인천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주요 행사의 상세 일정은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년도 APEC 의장국 수임 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상회의 주간행사는 금년 하반기 중 일주일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순서로 개최됩니다.

동 기간 중 ABAC이라고 불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최고경영자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석 규모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을 포함하면 연인원 총 2만여 명, 1일 최대 7500~9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약 1715억 원의 예산이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약 64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일부 분야 추가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금년도 추경 편성이 추진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과 그간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필수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입니다.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동법의 시행령이 제정 중으로 4월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분야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인프라 조성 현황입니다.

정상회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주 회의장으로 하여 모든 필수회의 공간 조성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주 회의장 건물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인접한 야외전시장에 지상 2층, 연면적 6000㎡ 면적으로 9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정상 및 CEO 숙소는 현재 개보수 공사 중으로 역시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산, 대구 등 인근 도시까지 포함할 경우 약 100개 숙소에 9600여 개의 객실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숙소 배정은 현재 APEC 회원 경제체 주한공관들의 의견수렴 중으로 상반기 중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이 서울 소재 주요 호텔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통해 숙소 관련 서비스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상 만찬의 경우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9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 연면

적 2000m<sup>2</sup> 규모로 건립하며 향후 2~3년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공항 및 교통·수송, 의료 대책입니다.

정상용 전용기 입항에 대비하여 개최 도시 인근 공항 주기장 확보 및 귀빈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원활하고 편리한 항공 이동 여건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 및 수송의 경우 김해와 인천으로 들어올 모든 대표단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항, KTX 역사, 행사장 등 주요 지점 간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 및 수송 추진전략, 차량 조달 및 셔틀 운영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료대책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관이 되어 응급의료 자문단 등의 자문 및 용역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쪽, 주제·중점과제 및 핵심 성과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개최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2025년 APEC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과제로 발표하였으며 당시 모든 APEC 회원이 참석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올해 APEC 회원들이 함께 추진해 나갈 핵심 성과로 아태지역의 포용적·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AI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발표하였고 회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향후 동 핵심 성과를 정상회의 계기 별도 성과 문서로 채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처가 개최 추진 중인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도 올해 APEC정상회의 전체 주제 및 중점과제와 핵심 성과에 부합하는 유기적 성과를 거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인사말씀을 못 하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홍기원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이신데 간단하게 홍기원 위원님부터 먼저 인사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지역의 홍기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요한 첫 회의에 왔다가 급한 일로 인사 못 하고 나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개최될 APEC정상회의는 특히 현 정국 상황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다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초청으로 한중의원연맹에서 중국 대사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묘하게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20년 만에 다시 APEC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열리는 아주 중요한 국제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외교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2025년 APEC정상회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북 경주 현장에서의 정상회의 추진 상황에 대해 준비된 팸플릿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정상회의 개요입니다.

개요는 앞서 외교부2차관계서 보고드린 만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1차 고위관리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고위관리회의는 올 가을 정상회의를 감안하여 회의 운영, 숙박, 의료,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대해 사전 리허설 성격으로 실제처럼 준비 운영하였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94점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를 느낄 수 있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과 5한(韓) 중심의 경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증 할랄 음식점 부재와 외국인 응대서비스 부족 등 일부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상회의 전까지 미비한 부분은 잘 보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비전 아래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부터 미래의 레거시를 남기는 다섯 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5페이지입니다.

APEC정상회의 주요 시설 및 위치도입니다.

2025년 APEC정상회의는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가 조성될 화백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12개의 정상 숙소, 경주엑스포공원 등 보문단지 내 컨벤션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주 천년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보여 줄 수 있는 불국사, 경주

국립박물관, 동궁과 월지 등을 활용하여 만찬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경제인 행사인 CEO 서밋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 차원의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유치 발표와 동시에 APEC준비지원단, 성공개최위원회 등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지방 차원에서의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 차원의 APEC 지원 조례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비비를 통해 대부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적인 미를 살리면서도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행사 개최 1개월 전인 9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상회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될 예정으로 정상들의 동선을 감안하고 한국적 미를 토대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회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층은 행정지원 시설, 2층에는 양자회담장과 VIP 전용 집무실, 3층에는 정상회의장과 VIP 라운지 등 정상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백컨벤션센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LED 영상, 빔 프로젝터, 음향 장비 등 설치를 통해 품격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미디어센터입니다.

HICO 야외 부지 6000㎡, 2층 규모로 설립 예정입니다. 최적의 취재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K-푸드, K-의료, K-컬처 등을 활용해 세계 언론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은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2000㎡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경주박물관에 위치한 성덕대왕신종, 100년 만에 선보이는 6개의 신라 금관 특별전시,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를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해당 구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만큼 4월 말까지 발굴 완료하고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세계인들에게 한류 문화의 진수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전시관 조성입니다.

전시장은 정상회의장 인근 엑스포공원 광장에 816평가량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 주고 이와 연계한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쇼케이스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전·친환경 산업의 중심지인 경주의 특성을 살려 전시장 옆자리에 한수원에서

700평 규모의 별도 전시장을 구성하여 SMR, 대형 원전,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 전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숙박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1일 최대 숙박 인원은 7700~9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장 반경 10km 내에 1만 2800여 객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전체 대표단 수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PRS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숙박업계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모텔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신개축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PRS 16개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9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평 이상 스위트룸을 개조해서 총 35개의 국민용 숙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APEC 전후의 경북 경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아래 숙박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부터 많게는 1700억까지 투입하여 보문단지 내 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이후 경북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제 APEC입니다.

APEC은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회의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경북 경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경제인들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의 세계 진출 발판이 되고 지역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류수출박람회, 투자환경설명회 등을 열고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을 개최하여 2025년 APEC정상회의를 세일즈 대한민국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의 현장이며 전산·방산·철강·이차전지·조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산기지인 울산, 포항, 구미시 등의 산업 시찰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관광 APEC입니다.

경주가 APEC 개최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년고도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의 힘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경북과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복·한식 등 5한 문화체험, K-pop 등 K-한류와 미디어파사드, 드론 아트쇼 등 K-콘텐츠, 지역 대표 브랜드 공연 등 APEC 문화축전행사를 개최하고 대표단 및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테마별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미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친교 및 배우자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전 세계에 한류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APEC입니다.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범시민지원협의회, 성공개최추진위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고 K-MISO 프로젝트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 캠페인 등 새로운 시민운동을 추진하여 경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대책입니다.

현재 교통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 등을 감안한 수송·교통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PEC 기간 수송특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김해, 경주역을 수송거점으로 하여 대표단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글로벌 CEO를 위한 모터케이드 지원과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보문단지 내에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자율주행버스,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활용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대책입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의 의료인들과 외교부·복지부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문화엑스포공원, 라한호텔 등 세 곳에 현장진료소를 구축하고 정상숙소 및 국가별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배정된 구급차량을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동국대경주병원을 중심으로 경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23개의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두 곳에 응급헬기장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비 60억과 동국대 자부담 2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응급장치와 병상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반영 건의입니다.

다가오는 정부 추경에서 보문 야간경관 개선, 문화동행 등 13건, 981억 원이 반영되어서 국격에 맞는 최고 수준의 행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는 국비 대응해서 641억 원을 반영한 바 있고 그 밖에 수송 관련 등 지방 차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해서 1489억 원을 저희들 준비단 예산으로 준비를 했고 기타 시도 간접예산까지 하면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APEC에 대한 전국적 이해와 홍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글로벌 CEO 및 일반 참가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역·경주역 간의 열차 증편,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내항기 증편 및 규모 확대 등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관계부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시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포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현 예, 말씀하시기……

○임미애 위원 잠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현 예, 말씀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일영 간사님께서 장관께 당부는 드렸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의 자료제출 부실 문제인데요. 이번 APEC 관련 업무보고는 사전에 의원실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니다. 회의 당일에서야 자료가 배부되었고요. 그래서 회의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준비위원회 그리고 외교부장관 및 외교안보특보가 단장으로 있는 준비기획단은 네 가지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두 번째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세 번째 인력·장비·시설 등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영 그리고 네 번째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이 네 가지를 심의하고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단 1건의 관련 문서도 저희가 제출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라고는 기껏해야 5쪽 분량의 개요 문서 그다음에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이미 확인 가능한 보도자료, 이 정도의 자료밖에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회의 준비 그다음에 성공적인 APEC의 성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현 차관님,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진 위원 관련해 저도……

○위원장 김기현 예,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이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 4월 4일까지 자료 요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부탁을 올렸는데, 심지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까지 요청을 했지만 관련된 답변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여억 원을 벌써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원실에서 두 쪽에 걸쳐서 나눠서 요구드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준비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먼저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전자 두 분 위원님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자료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신 이 자료가 오늘 11시 15분에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교부에 왜 자료를 빨리 안 주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차관님 결재가 안 나서 이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 자료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별 게 없습니다. 차관님 결재 없어도 얼마든지 밑의 직원에서 전결해서 쥐도 되고도 남을 자료인데 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지 그 점이 좀 걱정입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차관님 창원에 가서 주한외교사절들과 여러 활동을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여러 통신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후에 좀 각별하게 원활한 소통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현 차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장 차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경주 APEC정상회의가 이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가장 우려되는 지점 한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것? 아무래도 지금 회의장하고 숙박 인프라겠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태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T 잠깐 보실까요?

정상회의장 화백컨벤션센터가 올해 9월 달에 리모델링 완공이 되고 국제미디어센터도 9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만찬장은 10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네요. 10월 달 행사인데 10월 달에 완공이 거의 돼요. 혹시라도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전체 공사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요, 혹시?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특별히 원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약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김태선 위원** APEC 확정도 작년 24년 6월, 7월 이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신경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PRS 객실은 확보 다 됐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됐습니다.

○**김태선 위원** 아직까지 공사 중인 게 9개 있지요, 현재까지?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다 리노베이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의전장님 계시지요?

의전장님, 보통 제 경험상 보면 정상 간의 해외순방 갈 때 사전답사를 한 두 달 전에도 갑니다. 아시지요?

○**외교부의전장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두 달 전에 가 가지고 각국의 정상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맞춰서 바꿉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화장실 변기까지 바꿨지요.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대부분 정상들이? 이것은 어떻게 협의해 나갑니까, 혹시?

○**외교부의전장 김태진** 저희가 일단 숙소는 그렇게 하반기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 내에 배정을 할 겁니다.

○**김태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인 게 9월 중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외교부의전장 김태진** 배정은 상반기 중에 할 거고요. 배정이 되고 나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PRS는 그 구성된 PRS를 기반으로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될 PRS는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과 협의를 할 겁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PRS 같은 경우는 최소한 두 달, 세 달 전에 완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각국에서 사전답사 왔을 때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의전장님,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외교부의전장 김태진** 예, 아무튼 구성된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개선된 것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방을 고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플랜B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PRS 공사 중인 것 9월까지 마치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해외 정상이 왔는데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게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뿐만 아니고 인근의 포항이나 울산 부분도 고민하셔야지요. 왜 이것은 경주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집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김상철 단장님, 이게 경주 안에서 다 가능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객관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이것은 최대한 당겨서 안 되면 플랜B까지, 울산·포항까지 고민해 주시고.

차관님, 산업 시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대한민국의 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울산이 미래 신산업 시찰 현장으로 자동차하고 조선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3월 달에 미 의회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 전 개발 관련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라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태선 위원 이때 어떤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혹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쇄빙선입니다, 쇄빙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김태선 위원 HD현대중공업이 쇄빙선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것 세계 여러 나라도 있지만 가장 극도로 최대 규모의 극지용 쇄빙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 건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미국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 정부에서 대한민국 산업 중에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조선입니다. 쇄빙선입니다. 이 부분 연계시켜 주십시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와서 울산현대중공업,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방문하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차관님, 조금 전에 김태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서도 조선 산업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태선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을 꼭 방문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답변 됐습니까?

○김태선 위원 예.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아, 안 오셨군요.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오셨나요? 안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차관님,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회의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柳榮夏 위원 조금 노파심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 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미디어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저 미디어센터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된 걸로…… 공사 업체 입찰이 끝났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柳榮夏 위원 확인 못 했어요? 담당자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사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

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도의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예, 지난주에 시행사 선정이 났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72억입니다. 그렇지요? 172억 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가건물로 건축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 났습니까? 아니면 이것 가건물이면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가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 하실 겁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지금 보면 화백컨벤션센터가 가용면적이 1만 1000㎡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컨벤션 면적이 부족합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흔히 가건물이라는 거는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예상해서 가건물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향후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가건물을 지으면 안 되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지만 현행……

○柳榮夏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가설 건설물 짓고 난 다음에 저거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사용 연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국비가, 나랏돈 170억이 들어가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APEC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짓는데 저거를 앞으로 향후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 가건물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안 되고 가건물을 해서 철거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회의 때 질의를 드리겠고요.

차관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 체계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정상들은 잘 응급처치…… 정상들은 다 자기들 의료지원단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체 진단을 해서 이게 어느 권역으로 가야 될지가 정해질 건데……

그러면 경주에서 지금 경주동국대병원 그 옆에 있는 대구의 경북대병원도 있고 부산의 부산백병원도 있지만 가장 정말로 시급하고 아주 어려운 수술일 때는 서울로 이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柳榮夏 위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의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 당시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병동이나 이런 게 미리 확보가 돼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획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팀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부산이나 인근 지역하고 서울까지……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서대로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긴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서울로 이송하게 될 경우에 그때 대비해서 병실이나 병동의 확충, 수술실이나 이런 게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송 대책인데 지금 아마 해외 정상은 한 20개국에서 오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의 대부분은 전용기를 타고 오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기장을 김해공항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기장 확보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정상들은 주기장을 통해서 김해공항으로 오는데 나머지 CEO들이나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평창 때도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KTX가 임시적으로 운행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국토부나 또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서……

지금 증편이 문제가 아니고 인천공항에 1터미널, 2터미널이 있는데 어느 터미널이 출발점인지 모르지만 거쳐서 바로 경주까지 올 수 있는 그런 KTX 노선을 확보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몇 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20년 만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우는 애에게 우리 선조들이 뭐를 더 준다?

애로사항이 없대요. 그리 일하기 싫었나요, 외교부 지원이나 추진단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 하나도 없지요?

심지어 제가 ‘애로사항이 뭐니까’라고까지도 요청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아니, 대답해 봐요. 일하는 데 기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답해 봐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같이 국가를 위해서 다 하는 일인데.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래도……

○이병진 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

○이병진 위원 돼요, 안 돼요?

답변 주세요. 그냥 주고받는 일문일답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게 당당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 외교는 사실 실종됐다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이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홍보비서관 하셨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잘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2년 10개월 돌아봤을 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했나요, 아니면 위상이 실추되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교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자,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1번 ‘윤석열·김건희 대표적 외교 참사’ 한번 볼까요? 48초 정상회담, 바이든-날리엔. 명품 쇼핑 해외 순방, 여왕 조문 취소, 김건희 체코 언론 사기꾼 보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만 패싱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장관 한국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 한국 안 왔어요. 나토 사무총장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왔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병진 위원 미국과 우리가 FTA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체결됐습니다.

○이병진 위원 근데 상호관세 25% 맞았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또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왔던 나토 사무총장 이번에 한국에 옵니까, 안 옵니까? 보고받았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안 오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실무책임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윤석열 외교 리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 위상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떨쳐 버려야 돼요. 절호의 기회가 또 우리 한민족한테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바로 APEC 뭐다? 정상회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월에 대선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행정부가 2개월, 4개월,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봐요. 없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병진 위원 20년 만에 우리 다시 한번 21개의 국가수반을 모시고 1조 8000억의 유발효과가 있고 5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부에서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억나요? 그렇게 발표 다 했어요. 그것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다음에 월드컵이 있었고 88올림픽이 있었습니까.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드높아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또 큰 사태가 뭐가 있었어요? 챔버리 사태 있었지요,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병진 위원 그때 이상민 장관하고 김현숙 장관은 무슨 대답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전혀 이상 없고 준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APEC, 한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 관념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해야지요.

보충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우리 국민들이 요즘 참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또 우리 유치되는 경북은 산불로도 많은 이재민도 생기고 정국도 혼란하고 이런 국민들의 피로감에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절호의 행사가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우리 88올림픽 때 KDI에서 그때 돈으로 약 한 30조 규모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월드컵도 29조 원 그리고 20년 전에 있었던 부산APEC정상회의도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28조 3000억 규모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 애드벌룬을 띄우려면 올해 10월 찬바람이 불면 경주에 이 환태평양 연대에 있는 정상들이 다 우리 한국에 모여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국내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물론 더 큰 어젠다들에 다 묻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타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와 홍보 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홍보는 저희는 국내외를 양쪽으로 하는데 주로 홍보계획을 짜는 거는 문체부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외교행사 계기에 외국에 정확하게 저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가능하면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APEC의 의미를 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달희 위원 그냥 노멀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각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이 전체 행사의 컨트롤타워가 외교부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구체적인 보고도 받으시고 지시도 좀 내리시고 지침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음 회의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좀 체크하겠습니다.

또 다음 다른 한 가지는요. 경주가 10월 말 11월 초에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두 가지입니다, 안전이 문제인데요. 어떤 안전이나 하면 지금 각 센터가 다 9월 말, 10월에 급하게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용접 공사 해서 잘 지어 놓은 것 불태워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각 공사 주체자들에게 정말 정상회의 앞두고는 각별하게 다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지나칠 정도로 체크해서 이 공사가 다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대본은 사실 재난이 나면 중대본이 꾸러지잖아요. 이번에는 예방 중대본 개최를 한번 요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남노 났을 때 경주에 풍수해가 엄청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울산에서 산불이 나서 경주로 넘어가기 직전에 불을 껐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 가을 11월 이 회의를 마치기 전까지 없어야겠지요. 그러려면 일기예보부터 해서 우리가 잘 체크하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아까 공사 말씀하셨듯이 가건물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풍수해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행안부하고 예방 중대본을 꾸려서 각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검증을 꼼꼼하게 외교부 차원에서 센터가 돼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강인선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위원 APEC정상회의 준비의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여러 팀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외교부의 실질적인 책임 총괄자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책임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외교부에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실 홍보비서관하고 대변인을 하셨는데 다자간 외교에 대한 경험은 없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제회의, 정상회의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정상회의를, 그러니까 이런 다자 정상회의 말씀하십니까?

○이연희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APEC정상회의가 도시 선정을 할 때 경주와 인천 그리고 제주에서 유치 신청을 했는데 경주로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APEC정상회의가 서른한 차례 있었는데 인구 규모 25만 도시에서 APEC정상회의가 개최된 전례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로 수도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인구 규모, 도시 규모에 대해서 여쭙보는 것은 인천이나 제주에 비해서 그런 국제정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경주로 유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 아직도 다 짓고 있어요. 20년 전에 부산에서 APEC 할 때 1년 전 상황을, 그 회의록을 보면 이미 1년 전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주 APEC정상회의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이고.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까 봐.

그런데 지금 총괄을 준비하는 외교부차관은 아무런 경험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책임이 크신 경북도지사는 9일 날 대선 출마하신다 그러고. 이게 과연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한 가지씩 여쭙봅시다, 그러면.

지금 APEC정상회의의 참가국이 확정이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은 회원국, 회원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참가국이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몇 개국이 참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21개국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 회원국이 다 참가한다고 통보를 해 왔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통보를……

○이연희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다고 통보해 왔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확정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푸틴 대통령이 온다고 확정을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은 확정을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확정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속……

○이연희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숙박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숙박의 인프라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통령(president) 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그것 하나만 씁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굉장히 많이……

○이연희 위원 미국·중국·러시아 정상들은 오면 호텔을 통째로 다 이용하잖아요, 하나를.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것도 확정을 안 해 놓고 뭐가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러세요, 숙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연희 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숙소가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준비하고 있다지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연희 위원 알았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공항, 어떤 공항을 이용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김해공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을 이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께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브루나이 국왕이 이용하는 비행기 기종이 뭔지 아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F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희 위원 예. 그 F급이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할 수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점검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할 수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리는 할 수 있어도 안전상 문제 때문에, 보안상 문제 때문에 해당 국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국토부하고 점검해 봤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연희 위원 제가 지금 국토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외교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김해공항을 통해서 외국 정상들이 들어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들어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주기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경주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어떻게 이동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자동차의 경우에는 60분 정도 걸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보안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세밀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차관님, 지금 APEC 회원들이 21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APEC 회의는 매년 열리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회원국 정상 참여 여부들은 보통 1년 스케줄에 따라서 대충은 정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전에 한번 이것, 21개 회원국들이 서로 APEC 회의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뭘 얻고자 회원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APEC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지역경제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겠지요. 첫째는 우리 국가의 국가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회의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많이 높여야 된다는 것 또 이걸 통해서 유치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프라도 한 번씩 개선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얘기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APEC 회의는 1년 차 회의이고 보통 회원국 정상들의 1년 스케줄들은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원국의 주요 정상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 대략은, 상세하게 돌발적인 상황이 중간에 벌어져 가지고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회원국들의 참여 여부는 대충 윤곽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만희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은 회원으로 모여 있는 다자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그해의 APEC 회의가 열리는 일정과 장소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 정상들의 일정을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최대한 많은 주요 내빈, 주요 국가들 정상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APEC 자체가 경제공동체 회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국가 간의 정상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글로벌 CEO들,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또 여기 와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정상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CEO 참여율의 목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 부서를 해서 하지만 결국은 같은 국가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가 그쪽 부분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글로벌 CEO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셔 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고 있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뛰겠다는 그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김상철 단장님, 이 문제는 정상들 회의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본적으로 경제회의인 만큼 글로벌 CEO 참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산업부하고 대한상의하고 현재 논의된 바로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국내 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해서 적어도 톱 CEO급 35명 해서 해외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원 업무를 저희 경북지원단에서 하고 있고 산업부하고 대한상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인 만큼 우리 국가적 자원들 특히나 민간 섹터, 정부 섹터, 국회

에도 많은 외교적 자산들이 있거든요. 적극 활용해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개최지 단체장이나 준비위원회 위원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개최지 단체장은 어떤 분을 말씀……

○임미애 위원 경주시장, 경북도지사 이런 분들의 역할은 주로 뭔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단장이 계신데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김상철 단장님.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리 주재로 준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으로 하시면서 저희들 당초 유치할 때 외교부하고 협약했던 부분들, 정상회의 운영은 외교부하고 중앙부처가 하고 지원업무를 지방에서 도와 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무 이런 업무를 다 보시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관련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번에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드러나지 않았다고보다 저희는 그냥 대부분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회주의권의 국가가 몇 개국인가요? 3개국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슬람 국가는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이슬람 국가는……

○임미애 위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단장님께서서는 이것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음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그분들보고 니네 먹을 것 싸들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APEC 회원국들의 각각 나라의 종교·문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최지, 다시 말하면 경주시와 경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최근에 보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경북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서 APEC이라는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각종 현안이 산적한데 이거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SNS에 최근에 올린 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

의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이번 비상계엄은 사상전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킨 대통령의 과감한 통치 행위다'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거기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서도 '야당의 횡포다, 부당한 정치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폭력을 옹호하셨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지난 2월과 3월 극우세력이 주도한 탄핵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말씀은 안 하셨지요, 걸린다고 애국가만 불렀으니까.

이 지사가 참여한 두 집회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했고 대표 손현보 목사가 최근 경북 산불 참사에 대해서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역사강사 전한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APEC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시진핑과 만나 무엇을 넘겨줬는지의심된다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가 '자유 우파의 문화적 시위'라 칭한 광화문 광장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노골적으로 반중·반러 정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의 사회적인 동향을 보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같은 입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APEC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APEC에 부르면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관님,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혐오 정서를 자꾸 조장하면서 그 정상들하고 평화를 논의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단체장이 있는 개최지에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상이 발걸음을 기꺼이 할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APEC정상회의준비위원회 일원으로서 이런 행위가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발언이나 행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일단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주변이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APEC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4년 9월에 대통령훈령으로 준비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총리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서 모든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준비하는 중에 실은 우리가 현재



의 결과 이전에 총리님의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3개월간 업무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최상목 대대행이 1월~3월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총리님이 87일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APEC 준비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은, APEC 유치해서 개최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다들 애정을 갖고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다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이 돌아오셨으니까 그런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실 때 외교부의 외교공무원 대사 임명을 했더라고요. 했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인선 위원 공무원 임용은, 대사 임용은 했고요. 그다음에 못 한 것은 특임공관장 임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특임공관장 발령을 못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관장이 아그레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중대사와 주인도네시아대사를, 특임공관장 임용을 재촉을 하고요. 지금 장관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임용이 다 끝났고 아그레망이 왔으면 장관님이 충분히 임용을 해도 되는 순서라고, 승인만 하면 되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는 눈치보는 공무원들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눈치본다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총리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APEC 유치국에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꼭 대사 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2005년도에 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서울 APEC 선언을 할 때 그때 내용 중의 하나가 젠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 중에서는 당시에 여성장관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여성 장관의 숫자도 109위이고 여성 의원의 숫자도 122위입니다. 우리 경제의 순위는 8위, 9위라 하지만 여성에 대한 것은 국제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차관님께서도 마침 여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슈 중에서 외교부하고 여가 부하고 잘 의논해서 가지고 이 어젠다에 젠더 어젠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요.

거기 안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또 딥페이크 범죄 이런 성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제로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증액으로 가 있다 보니까, 여성장관회의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 때 삭감이 됐습니다. 한 4조 5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

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예산 부분은 어쨌든 추경할 때 우선순위로 추경을 해서 여성장관회의가 순조롭게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APEC 관련 국가들은 여성 경제인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여성경제장관회의의 경우는 8월 초에 인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슈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예산 문제도 점검해 주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대사 임용하는 문제네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가 않으나 하여튼 전달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반드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다시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저도 국토위에 있으면서 워낙 그때 당시 김해공항의 한계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어서, 김해공항이 실질적인 운용 가능한 활주로가 2.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F급 비행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F급 전용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폴로 다 하면 3.2km까지 됩니다마는 대부분 3.6km짜리 김포공항이나 4.0km인 인천공항을 우회해서 오는 경유지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 하나 궁금했구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해공항에 못 내리는 분들이, 만약 여러 보안상의 이유로 안 되는 분들은 서울과 경주 간의 교통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숙박과 참여자에 대한 부분도 국가 단위의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도 참석 대상이지요, 회원국이 기 때문에?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푸틴 대통령도 참석 대상이지요, 98년에 가입했으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시진핑, 푸틴 다 참석 대상이니까 요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정부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건 맞습니까? 푸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참석 요

청하실 거지요? 하셨지요, 이미?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회원국에 대해서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회원국에 대해서 지금 하셨지 않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이라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장경태 위원 당연히 하셨…… 그래서 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참 참담한데요. 혹시나 또 안 하셨을까봐……

그런데 또 러시아는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경태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초청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국들이라서.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이철우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도 가능한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이야기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회원국을 초청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고 또 회원국들과 논의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를 들면 국가적 행사로 정말 명예로운 일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올 수도 있겠네요, 아주 국제적 행사로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 문제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알기로는 F급 비행기들이 착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주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KTX일 수도 있고 김포공항에서 김해까지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경주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논의는 정리해야 되겠다, 특히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다른 국내시설과 달리 항공시설은 워낙 아이카오(ICAO)나 이런 데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사실 좀 지엽적일 수는 있는데 미디어센터 운영 과정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172억이나 들어가는 공사 사업이고 국비, 구비나 시비 매칭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박람회 이후에 사용시설에 대한 향후 시설 이용계획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미디어센터 이용 관리를 경주시로 아마 이관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계획이 약간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회용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 이용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계속 지속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아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혹은 이걸 신축하는 것도 그 당시, 작년에도 저는 우려했던 게 보문단지에 있는 여러 가지 호텔의 컨벤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지자체에서는 정말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시설 이용계획에 대한 부분도 수립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도 지자체 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장경태 위원 예,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 화백컨벤션 센터가 컨벤션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 관련 절차 거쳐서 컨벤션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시가 관리 주체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경주시로 이관하게 되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는데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거기가 국제회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주 특성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연간 국비 지원을 요청하시지 않을까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이 관례로 놓고 보면 도와 시에서 같이 운영비 줘서 독립채산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행복청도 거의 대부분 국비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 위원입니다.

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래 의회가 행정부를 부를 땐 감독하고 질의하는데 저희 특별위원회 이름이 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전통이 짧지만 지원특별위원회라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현 예.

○조정훈 위원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APEC은 21개국이라고 안 하고 회원 이렇게 표현해서 중국·대

만·홍콩 다 포함한다고 들었는데 비회원국 초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누구…… 생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까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지금 사실 모든 문제들을 제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피로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6월 이후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매우 적절한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사이드카가 걸렸고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이 지옥 같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에 있어서의 보호무역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파도로 오고 있는데 이 APEC의 정신은 그것과 반대로 그 지역에 있어서 더 원활한 무역과 개방경제를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보호무역의 기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연을 맡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합의문이 만들어질지 기대도 되고 살짝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경제…… 그러니까 APEC의 정신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 의장국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전 직장 다니면서 국제회의 실무 지원을 해 보긴 했는데 지금쯤 되면 합의문 초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초안은 있으시지요, 공개는 안 하시겠지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조정훈 위원 미소 지으시는 걸 보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간에, 우리가 미국과 또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APEC, 그 지역에서의 보호무역이 우리 지역을 살릴 길이 아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나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게 결국은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의회도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고 국회에서 행정부 하나하나씩, 공항의 활주로, 호텔 이런 것까지 논의하는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경주 주민분 한 분, 그 지역 또는 경상도 지역 자존심 살

린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국익에 맞는 그런 합의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보호무역에 대한 신중함 또는 경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좀 논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각 의원연맹들, 저도 한미의원연맹의 저희 국민의힘 간사인데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일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만 총통도 올 수 있습니까? 중국의 반대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대만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립된 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을 잘……

○조정훈 위원 그래서 확립된 원칙과 관례가 누굽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거는 전례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전례는 누구였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주로 전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정훈 위원 현직은 못 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못 온다,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좀 부르면 안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것은……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단위라면서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 경제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거는 회원국……

○조정훈 위원 중국 무서워서 못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그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유념하고,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정훈 위원 저는 강력히, 만약에 국회의 요청이 필요하면 저는 도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의 정일영입니다.

차관님, APEC 회의가 정말 중요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두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무너졌어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두 번째 큰 문제가 12월 3일 날 국가의 품격이 무너졌어요. 국가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차관님이 걱정이 없으시네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고 내용 보면 굉장히 느려요. 이것을 시설이든 뭐든 확정을 시켜 놓고 계속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왜 이걸 걱정하냐면 제가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데,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인천이 경쟁을 했어요. 왜 인천이 꼭 돼야 되느냐? 인천에 인프라가 많고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우니까. 어쨌든 경주가 됐어요. 최대한 지원해서 성공시켜야 되지요. 시설을 많이, 호텔이든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든 시설을 많이 짓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보니까 늦어요. 경주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걱정되는 게—차관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APEC이라는 게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등? 컨트롤타워가 확실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 등등 하시면서 제대로 안 챙겼잖아요, 못 챙긴 건지 안 챙긴 건지. 하여간 총리가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 전체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준비위원회를 여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몇 번 여셨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다섯 번……

○정일영 위원 총리께서? 각 부처 장관들하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그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걸 잘 챙기셔야 되는데 차관님이 부단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경력을 보면 주로 홍보·언론에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차관이 되셨는데, 그러면 행정이나 이런 외교의 경험이 부족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틀어잡고 일을 해야 돼요. 막 못 하는 데는 혼내기도 해야 되고, 기재부까지도.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차관님이 단단히 아주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림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세계 정상들 당연히 오는…… 당연히 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오시도록…… 저도 외교 조금은 해 봤지만 대개 선진국 정상들 스케줄이 1년 전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분들이 확답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고 있고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차관님. 간단히 답하세요. 확답 못 받으셨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직 확답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1년 전에 스케줄이 확정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거의 선례를 보면. 어쨌든 그것 가지고 차관님하고 다음에 논쟁을 하고. 저는 차관님의 그런 마인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좋아요. 다른 것 얘기해 보지요. F급 항공기, F급 항공기 하는데 F급 항공기가 어떤 비행기가 F급 항공기입니까?

○조정훈 위원 우리 지금 지원하려고 모인 겁니다, 지원하려고.

○정일영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F급 항공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F급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가 F급이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큰 항공기가……

○정일영 위원 아니, 큰 항공기가 어떤 항공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그 재원에 대해서는……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B747은 E급입니다. F급은 제일 초대형이예요, A380.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김해공항에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취항을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장 문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정일영 위원 들으세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자세가 안이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주기장에서, 숙소에서, 회의장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맨들도 참석 인원이 아까 2만 명이 오신다면서요, 많을 때 7700명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잘 회유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나라 품격을 올리는데 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잼버리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차관님 걱정이 없으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정일영 위원 말씀하시는 거나 얼굴로 봐서는 잠 잘 자시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이게 회의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경주에서 1차 고위관리회의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아무런 홍보도 안 되고.

인천에서 회의가 몇 번 열려요? 19개 회의 중에 인천에서 열리는 게 몇 번인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정확하게……

○정일영 위원 송도에서 무려 7개가 열립니다. 그 준비도 좀 잘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항공과 교통에 관한 전문가로서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민주당 의원 조인철입니다.

저희도 업무보고 자료가 늦게 와서 보좌진들이 거의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까지도.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송구스럽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업무보고받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APEC이 갖고 있는 GDP가 세계에서 61% 차지한다고 돼 있네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미국이 몇 % 차지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 안에서요?

○조인철 위원 아니, APEC 안에서든 세계에서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조인철 위원 한 25% 이상 차지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인철 위원 중국이 몇 % 차지하나요? 중국도 한 15% 이상은 차지하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인철 위원 그러면 2개 나라가 합치면 APEC에서 거의 3분의 2가 됩니다. 2개 나라가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다자주의가 존속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의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 방향은 저번 회의에서 이미 결정 됐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인철 위원 그래서 그걸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2025년 APEC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라는 거를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드린 대로 결국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인철 위원 아니,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경제공동체 회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2025년 APEC 개관 추진현황에도 보면 될 하겠다, 무슨 목표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금전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2300억 이상 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조인철 위원 2300억 이상 써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지금 이것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경북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라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밀어주거나 집중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거의 없어요. 구체적인 업무보고 자료 자체를 잘 못 만드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 계획이 없는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표현을 못 한 건가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걸 해서 뭐가 좋아진다가 없어요. 경주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 브로슈어에 ‘경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다 안 믿지요, 과장이 돼 있으니까. 홍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외교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트럼프 이후에는—제가 외교는 잘 모릅시다마는—다자주의보다는 지금 양자주의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APEC이라고 하는 이게 계속 존속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고민상에서 제가 보면 원래 이야기했던 APEC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2025년 APEC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떤 돌파구로, 2300억 이상 투자해서 우리가 얻어 내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고민해서 결과가 뭐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일단 저희가 이러한 변화가 일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 주제를 잡을 때 가능하면 더 큰 주제를 잡아서……

○조인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말씀하세요.

○조인철 위원 계속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방향을 제대로 전환해서 가지고 경주에 맡겨 놓지 마시고 경주의 지역경제라도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구체화시켜서 지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단장님, 981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2300억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현재 521억이 지난해 정부안에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이런 거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외교부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지금 그런 추상적인 말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지금 계속 차관님 추상적인 말씀 하시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생산유발효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차관님, 20년 전에 부산 APEC 때 우리 국민들 속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글쎄요, 개인적인 느낌을 물으신다면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때 현대자동차가 싸구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미국에 인식되고 있었는데 의전차량으로 에쿠스를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내에도 현대차가 싸구려 차를 팔다가 이제 고급 차를 만들어 파는 그런 좋은 이미지로 전환이 됐고 저 의전차량이 불과 행사 일주일 했는데 뒤에 공매 처분될 때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려고 경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나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허성무 위원** 굉장한 이벤트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경북에서 준비지원단장님도 와 있는데 이번 APEC을 통해서 저런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뭐 기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지방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경북 경주가 됐던 부분들이 경제 현장이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상들이 모이면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 홍보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 기업들이……

○**허성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가 하나 돋보이게 될 만한 것들을 딱 집어서 지금 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뭔가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보고에 보니까 i-SMR 전시장을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번 APEC에 오는 회원 국가들 중에서 그것을 보고 제작을 의뢰하거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예측 되는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울산 조선하고 그다음에 SMR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주 지역 내의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당연히 장기적으로 효과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될 하든지 나중에 행사가 끝나서 평가를 할 때 이 APEC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제대로 건

진 게 뭐가 있다 하는 그런 게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기획이 돼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늘어놓는다고 해서 다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가 아주 국민들 뇌리에 또는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확실하게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준비를 하셨고 많은 보고를 하셨지만 확 와닿는 느낌이 없어서 제가 2005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방금 조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든 것 총괄해서 경제 효과가 얼마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까, 2025년 회의를 통해서?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우리 지역 내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유발효과를 1조 8000억 잡았고 대한상에서 해외 기관하고 한 것은 7조 3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도 질의 과정에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 APEC 같은 경우에는 부산연구원에서 28조 3000억, 그 이전에 월드컵 경기에서는 약 28조, 그전에 올림픽에서는 30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유발 규모에 대해서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마 범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범위의 차이라고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허성무 위원** 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한 그랜드한 디자인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당장 이 규모를 보면, 저도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처음 받았어요. 대한상에서 7조가 조금 넘는 효과를 내었는데 이전의 대회들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는 실은 경주가 됐던 부분들이 한류 붐이 일기 때문에 경주를 통해서, 경주가 10대 관광도시로 가는 그래서 제2의 한류 붐을 일으킨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단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서.

세 번째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쨌든 대한상공회의소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파트에서.

저것을 보면 지역에 어쨌든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에서부터 창원, 전체가 제조업 도시들인데 저기에 과연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것을 전시, 컨벤션하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참여 문턱을 좀 낮춰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의 문제, 배치의 문제, 참가비의 문제 이런 등등의 기준들을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는 추가질문 안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트럼프 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대를 맞이해서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APEC이 열릴 시점쯤 되면 트럼프 집권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주제가 잡혀 있는 게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 안 하지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내밀한 전략들 이쯤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기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낼 것인지 하는, 외교부나 산자부나 이런 노력들,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내밀한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마련한 그릇에 그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무역이나 투자에 관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김상철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25년 정부 추경 13건, 981억 원 건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리고 그 15페이지에 보면 그 건의 사업별 항목들이 죽 나와 있는데 국격에 맞는 최고 수준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잘되고 있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정부 추경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홍기원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언제 할지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 추경 확보는

상임위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경북도나 경주에서 기재부하고도 많이 협의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전혀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업들 추경이 확보 안 되면 APEC 행사 국격에 맞게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경주시와 도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들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너무 희생이 크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홍기원 위원 그래서 기재부에 그런 간절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수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기재부하고 정부 합동 점검 때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마는 추경 일정하고 예산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는 10조 원 추경 얘기했는데 만약 10조 원이 편성되면 이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특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상당 부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특위 위원들은 다 당연히 노력할 텐데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고……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일정 부분 지방에서……

○홍기원 위원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10조 원은 ‘산불 피해 지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집중하겠다’ 거기에 경주 APEC 얘기는 없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상당히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단장님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출신이시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준비 상황을 경상북도가 총괄하고 경주시랑 협력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도지사께 중요한 사항들 다 보고드리고, 그렇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도지사님이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하신 말씀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9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정치인 입장으로서 또 행정부의 장으로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지사직을 내놓고 하신답니까? 아니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안 되면 지사 계속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APEC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지방 차원의 조례 제정하고……

○**홍기원 위원** 단장님은 도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릴 책무가 있어요. 경주에서 APEC 하면 도지사도 호스트의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도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현장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각별히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APEC 준비에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도지사직 업무 수행은 차질이 있을 거고 그런데, 단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기본 틀하고 방향은 정부하고 정해져 있고 현장에서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홍기원 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별 역할이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하고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기원 위원** 지금 단장님은 이철우 지사님이 도지사직을 내놓고 출마하시는지 아니면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 선언하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홍기원 위원** APEC 준비에 제일 중요한 도지사와 단장이 그런 것도 의사소통 안 하면서 여기 와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홍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지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대선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했던 그런 말씀 하시면서 APEC정상회의 잘하겠다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돌아가서 과거에 한 말들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서 APEC정상회의 호스트로서 뭘 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부차관님도 분명히 말씀 좀 전달하세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으로 뭘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APEC정상회의라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자가 그동안 한 말씀들 보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지사로서 그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안 하시면 더 큰 문제지요. 그렇게 큰 행사를 놔두고 지사직을 관둔다? 그것은 더 큰 문제고, 이러한 정치행위 하다가 가서 또 그것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걱정이 되는 거고 단장님이나 차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우 지사님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그런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홍기원 위원** 단장님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준비지원을 책임지는 단장으로서 지사님한테 그런 것도 말씀 못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건의 말씀하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현장에서 도지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방향하고 방침은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지사가 있든 없든 잘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도지사님한테 그 자리의 막중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요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오셨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산불 회의 때문에 좀 늦어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한 분이 부단장이고 한 분이 단장입니까? 한 분은 정부 부단장, 김상철 국장님은 경북도……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원단장이고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쉬움을 많이들 말씀 주셨는데 이 회의 전에 적어도 추진단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에 어떠한 제한이 있고 어떠한가 가겠다는 것을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쓸데없는 야단을 맞지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특위 회의가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회의가 돼야 되지 자꾸 찢파를 놓는다고 해 가지고 잘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단장님, 필요한 게 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입니까, 도에서 만든 것 ‘국비 건의’? 저는 이것보다 더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개최한 주요한 국제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부품하게 하면 안 되지는 꼭 필요한……

김상철 단장님, 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추경이 아니라도 그 나라의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달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13개에 대해서 각 특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부터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맞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금도 이철우 지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 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언제 전화해 보니까 최태원 회장하고



경주를 쭉 순방하시면서 숙박시설 일일이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최대 하루에 숙박 인원이 1만 명이라고 합니다. 1만 명 숙박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것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김해공항 활주로 좀 부족하면 지금 늘리면 되지 않아요?

○柳榮夏 위원 상관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상관없어요?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동네 말로 접빈객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말씀하세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2002년도에 멕시코 로스 카보스는 인구 6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치러 냈고, 2012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일부 참가단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경북 경주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12개의 호텔이 있고 경주 특성상 한옥 관련된 호텔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멈춰 보세요.

그것을 특위에 오늘 회의할 때 영상으로라도 한 번 현출해 봤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회 본회의 열릴 때 그런 절차가 있다면 우리 APEC 경주는 이렇게 합니다고 의원님들께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 주셔야지요. 이미 천 년 전에 세계 중심 도시였는데 뭘 못 합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되지요. 그때 이스탄불하고 교류한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경주가 왜 유치되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저는 오늘, 아까 뭐 어디요? 제일 쪼매한 도시 이름 뭐라 그랬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멕시코 로스 카보스입니다.

○김형동 위원 어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2002년도에 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어디냐고? 어느 나라냐고?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멕시코에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멕시코.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회의를 개최해도 제일 좋은 데는 서울이

지요, 안보부터 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트럼프 워커힐 재우고 다 재우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경주를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K-컬처 얘기했지 마는 지금 지방이 다 소멸되고 원래 살기 좋은 동네였던데 인구 20만도 안 되는 소도시로 전락했는데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여력은 충분히 국제회의를 유치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선후방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만들어야지요. 세계적인 도시가 꼭 서울하고 인천만 있으면 됩니까? 경주도 있어도 되지요.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십시오.

일주일 전도 중요하고 후도 중요합니다. 행사 치르고 나서 그 시설 놀릴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MICE 산업이 됐든 문화 산업이 됐든……

1분만 더 주시면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냥 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30초만.

국장께서 지금 ‘내가 그 말 준비했다’ 이런 시추에이션인데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붐을 일으켜서 의회에 도움을 청할 때는 진정으로 위원들이 도와줄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3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바로 계속해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괜찮으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그러면 바로 정회 없이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이번 경주 APEC정상회의는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손상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성사를 해야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PT 한 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OM 2차 회의, 고위관리회의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기 형광펜으로 해 놓은 게 날짜가 정확히 보면 5월 3일부터 14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저거? 혹시 아세요? 며칠인지 모르시지요? 저거 아시는 분, 혹시? 그 뒤에 계신 분들. 자료가 틀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자료가 틀린 거예요. 저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6일까지입니다, 16일까지. 그런데 여기는 14일까지 표기돼 있어요. 아세요, 이거?

○**외교부2025APEC고위관리회의의장 윤성미** 구체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교정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신뢰도 문제인데 이런 것부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부터 틀리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세요. 이걸 실무적인 착오 같긴 하지만 이런 게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APEC이 이번 10월 달에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를 준비한 정부와 그리고 실제 이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세요? 이게 정부가 달라지니까,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해서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회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 말은 구체적으로 실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기획단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은 차관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게 갑니까? 만약에 그러다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시겠지요? 하실 거지요? 안 하실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 제……

○**김태선 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요……

○**김태선 위원**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 이게 국힘의 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 연속성이 없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제가 오늘 회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 되게 절박성을 못 느꼈고요. 그리고 차관님한테 긴장감을 제가 못 느꼈어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F급 항공기 활주로 갖고 얘기하시는데 지난 2005년도 저희가 부산에서 APEC이 열렸을 때 정상들이 어디로 입국했는가 알고 계세요? 어디로 입국했습

니까, 공항?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챙기신 거예요. 2005년도 저희가 APEC을 열었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柳榮夏 위원 그때 선진 4개국 정상들이 다 왔습니다. 조지 부시, 중국의 후진타오, 푸틴, 고이즈미, 다 왔어요. 그때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김해공항은 C·E·F급이 다 내릴 수 있는 공항이에요. 그것을 차관님이 미리 알고 오셨으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F급 항공기가 내렸습니더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체크 안……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그때 미국 정상 묵었던 호텔이 어디입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웨스틴조선을 미국이 결정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숙박시설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든 푸틴 대통령이 오든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오든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마 호텔 전체를 통으로 빌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경호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柳榮夏 위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지만 또 미국은 미국 경호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경호가 안 된다고 하면 숙박시설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도 외교부에서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6월 3일이 될지, 언제 될지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게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지마는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수인계서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실무자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차관이 그때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새로운 외교부차관이 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요.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와주려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북도 지원단장님,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직무대행을 행정부지사가 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행정부지사가 지금 준비지원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보고는 다 받고 있어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도의 정식 조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지방 도시에서 열리고 또 그보다 광역단체장이 여기에 전념을 해도 준비가 소홀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그분께서 다른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하니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무 국장이 도지사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하는지 사표를 안 내고 출마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차관님, APEC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의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의……

○이병진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고? 오늘 나오신 이 위원회의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 특별……

(웃음)

죄송합니다.

○이병진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차관께서는. 경주 2025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누구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만든 거예요. 특별히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실실 쪼개고 대답하면……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456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결정된 것만 해도 말이지요. 거기다 추가 270억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큰 댐이 말이지요, 어떻게 무너져요? 댐이 어떻게 무너져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이 슬슬 흐르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자료 주지 않았지만 답답해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봅시다.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월 20일 날 이렇게 개설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가 볼까요.

Visit Korea, Useful information 들어가 봤습니다. Visit Korea, 사계절만 나와요. Useful information, 한화에 대해서 1000원짜리, 1만 원짜리. 이게 지금 홈페이지예요.

그다음에 PPT 3번 볼까요.

220V라고 이런 거 알려 주고 있어요. 220V 이런 점이 외교에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차관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

한 외교 자원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이 홈페이지 만들었으면.

다섯 번째 가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마지막 열렸던 곳을 들어가 봤더니 ‘Page not found’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홈페이지의 지금 실정입니다. 이것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 강요된 세계경제 질서 재편에 대해서 반발할 회원국 있어요.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만의 지렛대를 가지고 독특한 선언을, 경주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해 봐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이루어 내야 됩니다.

○이병진 위원 정상회담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해 보세요, 차관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이병진 위원님, 추가질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우리 경제에 APEC이 아주 중요한데, 이 자체가 원래 경제회의인데 우리 경제 유발의 목표치 자체를 너무 작게 잡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7조 4000억 원 말씀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예, 목표치 전체가.

APEC에 대해서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한 보고서 보시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20년 전 보고서 말씀입니까?

○이달희 위원 보시고 결정하고, 보시고 하신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봤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주에 유치할 때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울산 그리고 포항, 구미, 창원, 많은 산업단지가 1시간 지근에 있어서 글로벌 CEO들 오면 그 산업 현장을 적극 보여 주고 일대일 기업들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다고 또 경제적으로 글로벌화 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신청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칭해 주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관심이 있는 기업과 나라들도 있고 저희들도 경북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1시간 인근에 있는 경제 산업단지, 창원까지 포함해서 다 매뉴얼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한번 돌린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매뉴얼이라는 게……

○이달희 위원 홍보용 홍보지라도 산업 부분에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김상철 국장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산업 기반에 대한, 산업기지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돌린 게 있습니까? 알아야 어디 가 보고 싶지.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날 상의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 포럼하고 산업 시찰은 아마 지방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 CEO 서밋(summit)하고 일정하고 봐서 저희들이 구미, 포항, 울산까지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서……

○**이달희 위원** 뉴스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글로벌 CEO들이 와서 숙박시설이 모자란다면 영일만항에 크루즈라도 띄워서 다 수용하겠다 하는데 그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가능합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일단은 검토 가능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정보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경주 내에 숙박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옵션으로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 하는 데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난해에 국회 증액 과정에서, 예산 과정에서 다들 긍정……

○**이달희 위원** 980억 추경을 요구한다는데 기재부에 가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기재부에서도 정부 추경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많은 부분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국회에 넘어올 때 981억이 담겨서 넘어오겠네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강인선 차관님, 외교부2차관이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부단장을 맡는 이유는 다자외교를 외교부에서 총괄하는, 전담하는 차관이 2차관이기 때문에 기획부단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APEC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지역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다자의 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외교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 드릴게요. 다자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 자유화 기여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신정부에서 전 세계 상호관세 정책이 내려져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APEC정상회의가 10월 달에 열리게 되면 자유무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 APEC정상회의의 주제는 됩니

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입니다.

○이연희 위원 거기에 주요한 의제는 어떤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번영, 연결, 혁신입니다.

○이연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유무역에 관련해서, APEC의 출범 취지가 자유무역 확대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의제를 외교부에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상세 의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연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는 10월 달 APEC정상회담을 국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다자간 외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차관이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 건과 관련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고위 관리……

○이연희 위원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초청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를 초청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쭙볼게요.

의제 중에, 한반도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나라 외교 전략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 계획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APEC은 경제회의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연희 위원 차관님, 답답한데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다자외교를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국익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의제와 관련된 것들이지 APEC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회의 장소만 대여하는 게 APEC정상회의의 전략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APEC정상회의의 출범 취지가 자유무역 확대, 보호무역 저지인데 그것 관련한 의제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 왜 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거는 기본으로, 제가 중점과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AI하고 인구구조에 관한 것들이 저희의 중점과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고요. 앞에 말씀드



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연희 위원** 뒤에 외교부 관계자들 와 계실 텐데, 이것은 어쨌든 경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교부차관도 준비가 안 되시고 경북도지사는 출마하신다 그러고, 이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준비 상태로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나라를 살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실무 준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어쨌든 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신 외교부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 특위가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개최국이 선정된 게 2015년이라고요. 10년 전에 개최국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개최국이 선정됐는데 개최지는 작년에 선정이 된 거지요. 인천, 부산 그리고 경주 이렇게 해서 경주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1년을 앞두고서 개최지가 선정이 되면 실제로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일정은 저희가 원래 되어 있던 일정을 따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교부의 어떤 일정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서 개최국은 10년 전에 정해 놓고 개최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1년 전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답변하신 거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준비지원단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원단장님, 이거 예산, 전체적으로 개최 준비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기본적으로 631억 확보했던 부분들은 기본 인프라하고 회의 운영하는 기본 시설입니다. 하지만 개최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13건의 이 예산들은 국회 차원에서 꼭 배려해 주십사 하는 예산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국비에 산 중에 확보된 게 만찬장 조성사업이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8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이 부분입니다. 원래……

○임미애 위원 40억 원 정도만 확보가 됐네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당초에 40억은 확보가 됐고 그 부분을 저희들 지방비로 40억 부담해야 되는데 만찬장은 국가 차원의 행사기 때문에 추가로 40억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관님, 부족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상황에서는 기재부 쪽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서로 협조 요청을 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임미애 위원 예를 들면 추경 과정에, 기재부가 지금 추경 얘기하고 있는데, 10조 정도 규모로 재난 대응 관련 예비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APEC과 관련된 추경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충분한가요, 지금 이 정도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지난번 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경주 쪽에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통상 이런 회의들은 2년 전에 준비하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예산인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 놓고 계획을 짜 봐도 정작 예산이 없이 시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연초에 좀 당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2년 전이라 그러면 개최지만 결정을 해 주었어도 그거는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최지 지정을 1년 전에 했는데 경주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으며 설사 인천이 선정되었다 그러면 인천이 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골탕 먹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요, 이거 기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소통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거를 저희한테 정보 공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 확보된 부분과 확보되지 못한 부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차관님, 오늘 보니까 다들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도 차관님이지만 김상철 단장님도 우리가 필요했던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확보한 건 얼마이고 경상북도가 돈을 미리 썼는데 예비비가 지금 산불 때문에 없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것 왜 더 달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열여섯 분 같으면 딱 나누어서 돌면 되니까 돌고, 특히나 이제 기재위에 있는 분이—정일영 간사님하고 저는 기재위입니다마는—기재부에다 대고 다시 또 소통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예산 부분을 다들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순연으로 오지만 1년밖에 준비가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딱 나누어서요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게 얼마이고, 지난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510억이었는데 우리는 460억밖에 없다, 그러면 시설비만 해도 이렇다, 이런 비교를 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관님,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각 나라들마다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특히나 FTA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선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에서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인가, 12월인가요? 그때 비공식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제와 중점과제를 정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거기 보면 연결·혁신·번영 이렇게 정해 놨다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압박하면서 미국에다 대고 자기들만 혼자만 잘 살아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는데 혼자만 나갈 수 없으니까 일대일 대응으로 어렵기 때문에 APEC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2020년에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라고 한 적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결국은 작은 행정도시를 만들면서 이걸 성공적으로 갔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선언이 이번에 경주처럼, 지방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더불어서 이 양반들은 보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자유화를 하자, 혁신·디지털 경제를 하자,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자 이런 어젠다를 던졌는데 계속 되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 부분을 잡고 다시 이번에 중점과제를 얹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바로 그 비전 위에 저희 중점과제가 서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이 걱정도 지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예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세요. 설득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원실에 찾아온 적도 없고 자료 한 장 준 적도 없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기재부도 가고 여기 의원님들 방도 오고 예결위에 설명도 하시고 그런 의지,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고요.

아까 비행기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부시 대통령은 B747급일 거예요, 옆에 미군 공항으로 내렸고. 확인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온 정상은 747인데 조금 다르고. 어쨌든 F급 항공기는 내린 적이 없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정상들 오시는 것도요. 차관님, 알겠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전체 19개 행사 중에 7개, 인천 송도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재무장관회의도 열리고 디지털장관회의도 열리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하면 각 부처에서 열리는 이런 회의도 우리 외교부에서 같이 참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컨트롤도 하시고?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희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 부처에서 열리는 장관회의, 고위급회의들은 부처가 그 키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결위 때도 그런 것 같던데 하여튼 이 전체는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이 그리고 총리님이 단장이시니까, 위원장이신가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성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장관회의들도 성공을 해야 돼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정일영 위원 경북 단장님!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정일영 위원 경주 보면 천년고도이고 야간에 조명, 그 야간 경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화 축제 이런 행사에 포함이 돼 있겠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산도 좀 추가로 들어갑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경주 보문호 활용해서 경

주 문화콘텐츠 입혀서……

○정일영 위원 보문호 말고 경주 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각종 전시·공연·체험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주 회의장이 9월 말 완료로 돼 있던데 이것은 경북 소관입니까, 외교부 소관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경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도 좀 당겨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뒤에 같이 앉아 계신 외교부, 경북 중요한 국·과장님들도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관계 부처·기관, 필요한 건 저나 여기 위원님들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지원해 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인데요. 경제효과 측정들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기재부든 산자부든 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태도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고생하는 저희 외교부 직원들한테 제가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약간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들끼리 하느라고, 저희들끼리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속 터져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사실은 그게 저희에게 큰 의지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도와 드릴게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상세하게 잘 챙기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화내시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화내신 분도 계시고 격려한 분도 계시고 하는데 화낸 건 화낸 대로 격려한 건 격려한 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자는 뜻이니깐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사항들을 차관님께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추가질의 아까 이병진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연희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두 분 3분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썰으시겠습니까?

차관님, 팬썰으시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팬썰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두 분이 3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경주는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였어요. 그렇지요? 저 장안까지도 연결됐단 말이지요, 당나라. 고대의 왕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 없는, 트럼프가 와서 보고 눈이 돌아가게, 관건은 뭐다? 트럼프·시진핑·푸틴, 더 나아가서 김정일까지 오면 금상첨화다.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가지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보호무역 확산 저지의 목적이 APEC인데 트럼프는 MAGA로 대변하는 각자도생, 우리만 살자라고 가잖아요. 여기서 미·중 회담이 되고 한미 정상회담이 되고 한중 정상회담이 되는 곳으로 활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활용해야 합니다.

○이병진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차관님은 유감스럽게 실실 웃으면서 업무 전체를 장악을 못 하고 계신 느낌을 받았어요. 모르지기 ‘부’ 자가 실질적인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모든 걸 장악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시하면서 해야 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리더는. 또 웃으려고 그래.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아니에요.

(웃음소리)

○이달희 위원 위원님이 웃겼잖아요, 우리도 우스운데.

○이병진 위원 내가 잘 웃기는 사람인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바로 K-컬처로 대변하는 그 어젠다가, 지금 의제가 커넥트(connect), 이노베이트(innovate), 프로스퍼(prosper)지만 우리가 거기서 첨가시켜서 말이지요 새로운 경주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경주 정상공동선언이 나와야 된다. 2018년도 파푸아뉴기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APEC정상회담에서?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APEC정상회담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때 정상공동선언이 안 됐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의장성명만 채택했잖아요. 왜? 2018년 트럼프. 여기 공동선언 안 나오면

도로에 불과한 경주 APEC정상회의가 됩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아까 첫 질문에 ‘우는 애한테 뭐 더 준다’ 말씀드렸잖아요. 요로에 찾아가서 협조 요청하면 여기 안 도와줄 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국가적인 대사이고 우리가 다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외교적으로 가졌어요. 그동안 망친 외교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단 말이지요. 이때 활용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저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다보스는 더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경주보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산으로 올라가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다보스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부처들이 합쳐서 기획단같이 일을 하지만 저희가 주변에서 지원군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끼리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께서 다 에너지를 주시니까 저희가 귀찮으실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요청하고 다르게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제로 정상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서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소속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답변 듣고 나서 바로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F급이 김해공항에는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에 답변을 어떻게 썼냐 하면은 조건부로 현장점검 없이 관련한 추가 안전조치 조건인 이착륙 시 중량 제한, 운영 절차 개선 등을 통해 APEC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조건부로 허용한 이 조건들을 준비단 측에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세계 미국·러시아·중국의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을 감수하고 과연 오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공항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그 해당 정상들이 안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북도 단장님, 지금 APEC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방 예산은 1489억입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예산이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 APEC……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1489억입니다, 저희들 도에 편성돼 있는 것은.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외교부 직접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개괄적으로 얼마입니까? 3200 정도 되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거기에 플러스, 국비를 981억을 추가로 해 달라는 거지요?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부 추경이 안 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

○이연희 위원 그러면 경북도나 경주시에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유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 추계 같은 것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그런 정도 각오를 하고 했지만 나중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회 차원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부탁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단장님, 이런 겁니다. 경주에서 개최되면 당연히 경주나 경북의 경제유발효과는 매우 크겠지요. 그런데 타 시도보다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인천이나 제주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 신청을 했으면 여기서 계속 국고를 지원해 달라 하는 거는, 그 국고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프라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치 신청을 했으면 경북도나 경주시에서 그만큼 재원을 수요를 하는 그런 희생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부족하면 계속 국고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EC 경주 정상회의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물론 중앙정부도 필요한 예산들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성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합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과 합의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경북도에서도 관련한 예산을 더 충당을 하십시오.

○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건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현 차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현 강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오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사실 제가 관련 기본계획 같은 걸 다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은 이야기는 작년 말에 F급 허가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 20개 주기장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국토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맨 처음부터 국토부에 그걸 요청을 했고 국토부도 그거에 먼저 필요한 절차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세세



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현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경주로 개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있으신 경주 지역 출신의 김석기 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을 적극 설득하고 특별법도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 설득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그에 비해서 외교부가 준비하는 건 조금 더 이게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고요.

서면질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그리고 이인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선 외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단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기현 김태선 김형동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경태 정일영 조인철 조정훈 허성무 홍기원

○출장 위원(1인)

김재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조태열

제2차관(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부단장) 강인선

의전장 김태진

2025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윤성미

2025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기획실장 김지준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